

# 아이들 꿈 자라는 소리 가득… 저소득 아동 든든한 후원자

## 드림스타트에서 희망 찾는 아이들

#1. 광주 모 초교 1년 A(8)양은 할머니·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만 12세 이하 빈곤층 아동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인 '드림 스타트' 서비스 대상이 됐다. 나양은 양육 환경 관련 위기 지표에서 위험도가 높아 '중위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광주시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 소속 의료·보육·복지팀이 주기적으로 집을 찾아와 A양에게 건강검진과 신체 밭달 점검·물품 지원·공부방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A양은 말도 곤잘 하며 반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할 만큼 성적도 올랐다.

#2. 광주 모 초교 3년 B군은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1년 전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밥낮을 거리지 않고 일하느라 B군을 돌볼 겨울이 없었다. 어느 날 B군이 방안에 소변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B군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알아챈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를 찾았다. 드림 스타트센터에선 B군을 심리발달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 또 우울증세를 보이던 B군의 어머니에겐 상담프로그램을, 아버지에겐 알코올중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 1년이 지난 현 B군의 가족들은 재결합해 화목한 가정을 되찾았다.



7세~12세 이하 아동들이 광주시 북구 우산동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 내 한 교실에서 경제 상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대상 아동 가족들이 광주시 북구 우산동 드림 스타트센터 한 강의실에서 가족 희망찾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 보건소·학교 등과 연계… 건강·복지·교육 맞춤 서비스

### 공부는 기본, 다양한 체험활동에 심리치료까지 지원

두 학생과 같이 방치되며 쉬운 차상위계층·한 부모·조손 가정의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나 보건소·학교 등과 연계해주는 드림 스타트 지원사업이 저소득 아동의 든든한 후원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행중인 드림 스타트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다. 전액 국비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아동은 물론 어머니·아버지 등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는 점이다.

26일 광주시 각 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드림 스타트 지원대상 아동 수는 모두 1959명(1262세대)이다. 구별로는 ▲동구 624명(426세대) ▲서구 347명(222세대) ▲남구 327명(211세대) ▲북구 341명(222세대) ▲광산구 320명(181세대) 등이다.

이들은 각 구청 드림 스타트 담당 부서에서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건강·보육·복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저

소득 아동 중 위기도 조사를 통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별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아동이면 영양교육·성장발달 스크리닝 등 신체치료를,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심리치료 등 정신건강 치료를, 복지가 필요한 아동이면 멘토링 서비스 등을, 보육(교육)이 필요한 아동이면 언어학습 등을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는 현재 위기부모 가족상담 및 치료·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진로지도 및 직업탐색·나 훌로 아동 써스터 멘토링(Sister mentoring)·희망찾기 드립이 가족 캠프·달팽이와 친구들 헬프 실 등 모두 52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담당 직원 6명이 5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인당 30~40세대 아동들의 신체·정서·관계·경제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해당 아동의 집에 숟가락·젓가락 수가 몇 개인지 알 정도로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 게 북구 담당직원들의 설명이다.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는 특히 해마다 아동·부모를 대상으로 민족도 조사를 통해 각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없애는 등 변화를 주고 있다. 북구는 다음달 말까지 빛 드림 축구 단을 창단, 해당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계획이다. 또 나홀로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한 드림 생활지킴이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지원받은 아동들에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학업성적 및 자신감 향상, 긍정적 사고방식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상담치료·부모교육을 위한 드림 가족 희망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김모(여·43)씨는 “아들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아직까지 한글도 깨우치지 못해 걱정했는데, 이 서비스를 받은 뒤부터 공부에 재미를 갖게 됐다”며 “드림한 후원자가 생긴 것 같아 저는 물론 두 자녀 모두 하루하루가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한민(50)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 팀장은 “아동과 가정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낮다”며 “지역 자원봉사자·주부·민간단체·기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더 많은 소외계층 아동들이 학습지도·정서 멘토링·다양한 체험활동·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드림스타트 해외사례

### 가정환경·소득에 따른 학습능력 격차 최소화

### 건강·사회적 발달 돋고 공정한 출발 기회 보장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자국 저소득 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개발·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중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은 1965년부터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에 따른 기본학습능력의 격차 발생 및 격차의 지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상은 0세~5세. 프로그램은 의료·정신건강·영양·교육 등 다양하다.

영국은 199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동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키운다. 이를 지원하는 인력들은 간호사·교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호주에선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0세~7세 아동.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보건·발달·인지 등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돋고 소득·지역 등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부모·가족·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페어 스타트(Fair start)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이 태어난 후 18개월 후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의 말하기와 언어·신체·사회적 발달 등에 대해 검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뇌의 75% 이상이 5살 이전에 발달하는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빠른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아이들 행복한 세상 꿈꿀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북구 드림스타트센터

#### 2007년 오픈… 6명 직원 341명 돌봐

#### 프로그램 개발·후원기관 발굴 노력

“하늘 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시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 직원들은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드림 스타트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 직원 수는 모두 6명. 대상 아동이 341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한 명당 56.8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최근 전까지 저소득 아동을 위한 건강·보육·복지 등을 통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아동 관리 이외에도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동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 같이 적은 인력에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것은 그간 쌓



광주시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 직원들이 26일 북구 우산동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 사무실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민경기자 choi@kwangju.co.kr

인 노하우 때문이다.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는 2007년 5월 오치 2동 주민센터에 첫 문을 열었다. 대다수 구청이 2008년부터 드림 스타트센터를 운영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발 주자다.

이후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는 26개 전체 동(dong)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담당 직원들의 노력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 북구 드림 스타트센터가 2011년 4월 드림 스타트

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된 것이다.

김민정(여·42) 사회복지 담당은 “사업을 정착단계에 올린 만큼 보다 정교한 지역 내 아동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분야를 지원해 아동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매매가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가 은 공인중개사

###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각 토지 매수자 대기증  
※ 염전 실운영자 대기증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3215-9969

### 중앙공인중개사

#### 부동산 구함

☆ 아파트 밀집지역 및 상권 형성  
된곳 복 의회 신축부지 약 250

☆ 지하철 쌍총역 인근 광장간 대로

변 사용부지 100~150평 구함

☆ 북구지역 시내부지(약 150평내

외) 또는 사용부지를 구함

#### 상가건물

☆ 광산구 신창동 보증금 3억5천

만원 월세 1천500만원 매매가

27평원

#### 대지·전·답·임야

☆ 광산구 동신동 확장동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40만원

☆ 서구 세화동 2차선 도로로 주

거지역 약 12,522㎡(763평) 매

매가 평당150만원

☆ 서구 황제동 도로변 중주거지역

인근 광장간 도로변 중주거지역

대 345㎡(104평) 매매가 평당 750만원

☆ 광신구 송동동 저지역지역 2.988㎡(904평) 매매가 평당60만원

☆ 광신구 오윤동 97평 시내버스

정류장 미터별 763평) 매매가

평당27만원

#### 전원주택지

☆ 광신구 오윤동 97평 시내버스

정류장 미터별 763평) 매매가

평당27만원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 223-1772 휴 010-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출 상담문의

문의 : 011-647-4747

### 금매 상가/원룸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세 794만

▶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 투룸 4개

▶ 토지면적 : 330.58㎡ (100p)

▶ 건축면적 : 73.19㎡ (22p)

▶ 매매가 6억 8천원/평 24천원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월지급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지급 3

억8천백만 대출이자 5.7%

월 116만원 공제하면 월순